

사과향기 넘친다

동 광 명

만리마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숨결속에 요즈음 이채로운 풍경이 수도의 거리에 펼쳐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때로부터 거리마다 넘쳐나는 사과향기, 과일향기속에서 내 조국의 벽찬 숨결이 더욱 높뛰고있다.

어제 오후에도 나는 할머니와 함께 과일남새상점으로 갔다.

상점에 이르니 밤금 도착한 대형화물자동차들에서 잘 익은 사과알들이 무뚝히 담겨진 사과상자들을 부리우고있었고 한쪽에서는 사과를 공급하느라고 법석이였다.

정말 눈코뜰 겨를이 없었다.

인민반장어머니랑 우리 인민반의 할머니들은 사과를 공급받고도 그저 가지 못하고 사과상자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과상자들을 받아주며 판매원들의 일손을 도와주었다.

나와 할머니도 적재함에서 내려주는 사과상자를 받아주었다.

물씬 향긋한 사과향기가 코를 찔렀다.

할머니도 사과알들을 보더니 대번에 탄성을 터쳤다.

《야, 거 사과들이 정말 먹음직스럽구만.》

여기저기서 할머니의 말에 수궁했다.

《정말 기쁘막히게 향기가 좋구만요.》

《그러게 말이예요.》

사과상자를 내려놓고난 할머니며 여러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사과알들을 집더니 사과향기를 맡는것이였다.

하더니 할머니는 대번에 눈물이 글썽해지는것이였다.

《이게 다 우리 장군님, 원수님덕이지요.》

《정말 그래요.》

나도 사과를 집어들고 향기를 한껏 맡아보았다.

그 상쾌감은 나의 마음속에서 뜨거운것으로 북받치게 하였다.

그 향기속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는 사과를 풍족하게 먹이시려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펼쳐놓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이 우렷

이 안겨왔다. 우리 장군님 얼마나 험난했던 길을 헤치며 안아오신 오늘의 사과향기인가.

낮이나 밤이나 늘 인민만을 생각하시며 인민들이 더 잘 입고 더 잘 먹게 하시려 견고걸으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땀방울이 그토록 진한 자양분이 되여 사과나무들마다에 꽃들이 피였고 탐스런 열매를 맺은것 아니던가.

그토록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 장군님 오늘의 행복을 인민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고 자신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신듯 환하신 태양의 미소만을 뿌려주시니 어찌 그 사과향기를 무심히 말할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 원수님 풍년든 과일군을 찾으시여 가지가 휘여지게 달린 사과알들을 한알한알 만져보시며 정보당 70~80t의 과일을 생산한 과수작업반들이 수다하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과일대풍소식을 들으면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풀게 되었다고 수도시민들에게 한시라도 더 빨리 공급하도록 긴급수송대책까지 조직해주시지 않았던가.

지금도 귀기울이면 들려온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그득히 담긴 사과수송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뜨겁게 울리던 그날의 경적소리.

그때부터 해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찾아온다.

정녕 우리 장군님의 사랑을 담아시고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지금은 인민이 사는 곳 그 어디에서나 사과향기가 넘치고있나니.

그것은 정녕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 불러오신 영원히 진함을 모르는 사회주의만복의 향기, 우리 국력의 위대한 시위인것이다.

할머니와 사람들모두가 붉게 익은 사과들을 받아 안고 눈시울을 적셨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사는 복받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며...

그 사랑에 보답할 충정의 한마음 굳게 다지며...